

“시련”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오늘날 유심히 한국의 교회를 관찰해 보건대 많은 회원들이 큰 시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련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결심이 너무나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직 강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견딜” 것이며 이러한 자들만이 강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 성도들이 서부의 황무지에 정착할 때까지 겪었던 뼈에 사무치는 시련과는 다른 시련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힘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2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의 곤고는 “잠시뿐”이며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시뿐”인 곤고는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것은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언자 또는 다른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엘마서 14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온 자들 중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악한 자들만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릇된 이유 때문에 선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도 자유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

라 사악한 자들이 그들이 원하면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은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왜 그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무런 장애도 갖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장애가 저주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교회에 속해서 찾을 수 있었던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나의 소속 와드에서 한 자녀를 잃은 어느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와드의 회원들은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나는 전에 이 가족에게 닥친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시련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훌륭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 같은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사랑이 증가됨을 느낍니다.

우리는 고통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이나 환난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생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진실로 욕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강조해야 할 세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욕은 시련을 통해서 진실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나의 구속주는 살아 계시다는 강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클레멘트 형제 서울 서 선교부장에

1979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조직되는 서울 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브렌트 클레멘트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서울 선교부에서 분리되어 조직되는 새 서울 서 선교부는 안성, 수원, 청주, 대전을 포함한 남부 지역과 서울의 서부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 서 스테이크도 새로운 선교부의 구역 안에 있게 된다.

신임 클레멘트 선교부장은 아이다호 주 출신으로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마쳤다. 부인 앤 미첼 자매와의 사이에 4남 2녀를 두고 있는 클레멘트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데저렛 뉴스의 기자를 역임하였고, 지난 4년간 농업 전문지를 발행해 왔다.

브렌트 클레멘트 선교부장 부처와 자녀들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150주년 기념 청소년의 밤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제 4 와드에서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 합동으로 아론 신권 회복 150주년 기념 특별 “청소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3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활동을 하였는데, 전시회와 영화 감상을 비롯하여 각 와드/지부의 재능 발표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별히 교문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모든 회원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둥근 달빛 아래서 펼쳐진 자매들의 신체조와 무용과 형제들의 농악은 젊음과 지혜를 나타내는 한쪽의 그림이었다.

활동에 참여한 아론 신권 성도들



서울 서 스테이크 6개 와드 탄생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5월 5일 제 2 와드에서 스테이크 특별 모임을 갖고 제 2 와드에서 서대문 와드를, 제 6 와드에서 녹번 와드를, 인천 와드에서 동인천 와드를, 제 7 와드에서 노량진 와드를 분리시켰고 화곡 지부와 대전 지부를 와드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서울 서 스테이크는 현재 11개의 와드와 11개의 지부를 갖게 되었다. 새로 부름받은 역원은 다음과 같다.

서대문 와드	감독: 이근혁
	제 1 보좌: 이영규
	제 2 보좌: 김영수
녹번 와드	감독: 송평중
	제 1 보좌: 박기주
	제 2 보좌: 김린
화곡 와드	감독: 이도환
	제 1 보좌: 서창현
	제 2 보좌: 전영만
동인천 와드	감독: 신종만
	제 1 보좌: 강락희
	제 2 보좌: 박동화
대전 와드	감독: 윤화중
	제 1 보좌: 이종구
	제 2 보좌: 민병선
노량진 와드	감독: 고천석
	제 1 보좌: 권용건
	제 2 보좌: ———

제 2 와드, 제 9 와드 헌당식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스테이크 산하 제 2와드와 제 6와드의 예배당 헌당식이 기쁘게 장로를 감리자로 모시고 지역 지도자와 성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동안 회원들의 땀과 정성이 결실을 보아 헌당을 하게 된 예배당은 공과 교실, 예배당, 상호부조회실, 조리실, 합동실 등 모든 시설을 다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2와드 헌당식에서 말씀하는 김 창선 부장과 신권 지도자들

9와드 헌당식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와 성도들



광주 지방대회 성료

대회에 참석한 광주지방부 성도들



합창을 하는 광주지방부 성도들

광주 지방부는 지난 5월 13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이 호남 선교부장 감리하에 전반기 지방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으나 목포, 광주, 여수, 순천 등지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박 병규 지방부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박 연순 자매는 "복음의 정신으로 이웃을 돕자"는 제목으로, 장 재환 부장은 "자기의 몫을 다할 것"을, 이 호남 선교부장은 "기도"를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지방부 주최 문화의 밤과 지방별 합창 대회가 있었으며 선교부 직원들이 준비한 역원 세미나가 있었다.

박 은정 자매 신사임당 상 시부문 입상

서울 서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이 근혁 감독의 부인인 박 은정 자매는 지난 5월 17일 개최된 주부클럽 연합회 주최 11회 신사임당 백일장 시 부문에서 3등에 입상했다. 박 자매는 꽃꽂이에든 조예가 깊어 부산시 교육감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래에 시를 소개한다.



수상하는 박은정 자매

“바늘”

너 어머니여
가슴 적시는 슬픔이여
오랜 인고는
숫제
반들거림으로 빛나
안으로
안으로만 앓던 그 아픔은
오늘 소망되어 떠나간다.

너 어머니여
아름다움이여
가장 작은 곳의
크나큰 자세여
베풀며 누빈 자리
사랑이 수놓인다.